



개에서 한방의 치료 효과

전에 ‘개에게도 침을 놓나요?’ 를 쓴 적이 있었다. 디스크로 인해 뒷다리 마비증세가 있는 개를 침으로 치료해서 견게 해 준 임상예를 들면서 침치료의 효과를 설명한 글이었다. 침은 의학적으로 그 효력을 설명할 수 있다. 침차리 특히 양능천(담경-34)이나 족삼리(위경-36)에 자침하면 진통제인 모르핀이 뇌하수체에서 생성하기에 통증치료에 효력이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한약’ 은 의약품이 아닌 건강보조 식품으로 분류돼 있다. 그러기에 미국 의사로서 한약을 치료약이라고 말할 수 없다. 감기 증세로 기침을 심하게 하는 개에게 한약을 처방한 적이 있었다. 한약 탕제인 갈근마황탕을 사용했다. 갈근마황탕은 한약교재에 가장 많이 소개할 정도로 감기, 기침에 효력이 있는 전통 한약 해표제이다. 구성 식물로 갈근, 마황, 계지, 행인, 감초가 포함되어 있다. 나는 몇 차례 갈근마황탕을 기침하는 개에게 복용을 하게 한 후 나름대로 결과를 갖고 있다. 중국에서 조제한 알약 약제인 갈근마황탕을 기침하는 개에게 먹었더니 기침을 멎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조제한 한약제인 갈근마황탕을 개에게 먹이면 차도가 전혀 없었다. 이유는 중국제에는 마황이 포함되어 있고 미국제에는 마황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마황이란 식물에는 에페드린이란 성분이 있다. 이 성분은 기침치료제로 의사나 수의사가 흔히 처방하는 의약품이다. 미국에서는 마황 같은 약초를 왜 한약제에 포함할 수 없는가를 알아야 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한약제는 미국에서는 식품으로 취급

장철봉

미국 Rose Slauson Animal Hospital 원장,
국제수의침구사협회 공인수의침구사
cbchangdvm@gmail.com



할 뿐이며, 게다가 미국에는 ‘한의사’ 는 의사가 아니기에 의 약품을 처방할 수 없다. 그러니 마황을 한약제로 사용할 수가 없다. 따라서 같은 한약명이지만 중국제는 효과를 냈고 미국제는 효과를 볼 수 없었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질병치료를 위해 주변에서 서식하는 풀이나 나무뿌리, 열매 등을 이용했다. 한국에서는 들이나 산에서 서식해서 질병치료를 사용한 식물을 한약이라고 한다.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도 그곳에 자생하는 식물을 사용함으로 건강을 지키고 질병으로 부터 자신을 보호한다. 이들이 사용하는 약초를 그냥 민간요법제라 한다. 차이점은 아프리카인들은 식물을 섭취 후 얻은 경험에 의해서 약초를 선정하고, 한방에서는 식물의 맛(오미)과 체감(사기) 같은 느낌으로 약초를 선택하게 된다. 적잖은 의약품은 식물에서 추출해서 만들어지거나 개발된 것이다. 아스피린도 그렇고, 심장약인 디지탈리스, 말라리아 치료약인 키니네 등이 여기에 속한다. 한약을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무해한 식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통째로 섭취해서 건강을 유지해 주기 때문이고, 양약이라고 불리는 의약품은 식물의 조직을 구성하는 성분을 추출해서 만들어 질병의 치료제로 사용하기에 약품이라 한다. 몸에 해를 끼치는 음식을 멀리 해야 하듯이 식물 속에 있는 모든 성분을 전부 섭취하는 한방에서도 한약제 선택에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나는 음식을 특히 조심해야 하는 당뇨병 또는 간질환 개나 고양이 환자에게 한약제를 처방 하지 않는다.☺